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세계 주요 경제기구, 올해 유럽 지역 교역량의 큰 폭 감소 예상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UPS,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 시설 확장 지속
2. 프랑스 물류기업 CMA CGM, 아프리카로 물류 시장 확대
3. DHL 익스프레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인력 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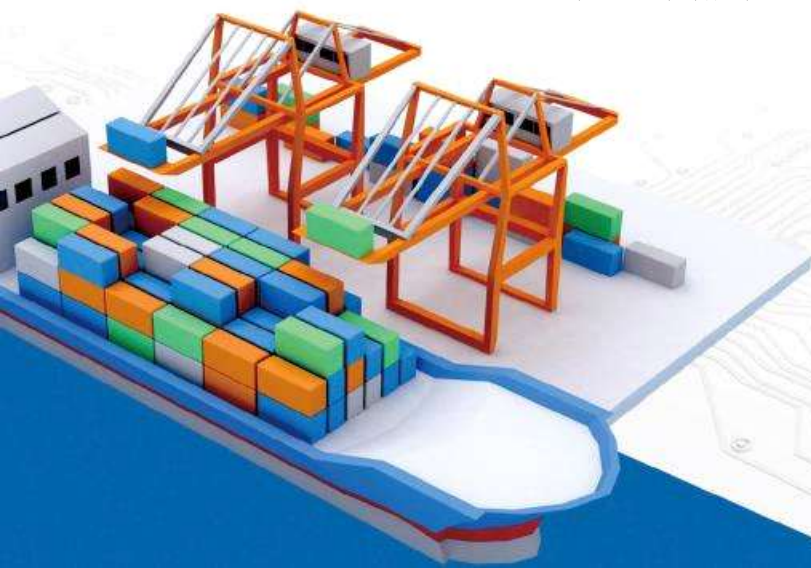
공지사항

- 2020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신청기한: 2020. 6. 8.(월) ~ 2020. 6. 19.(금)
※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

명사 스피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 투입으로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외국 국적선사에 의존해 왔던 국제 핵심항로를 되찾게 되었고, 이는 HMM의 흑자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적 선대와 영업망을 대폭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2020. 6. 16 /한국해운신문)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세계 주요 경제기구, 올해 유럽 지역 교역량의 큰 폭 감소 예상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주요 경제 기구의 유럽 지역 교역 감소 전망

(단위 : %)

구 분	교역 감소율(최저)	교역 감소율(최대)
UNCTAD	20% 내외 예상	
WTO	13%	32%
EC	10%	16%
OECD	9.1%	11.5%
- 영국	11.5%	14%
- 프랑스	11.4%	14.1%
- 이탈리아	11.3%	14%
- 독일	6.6%	8.8%

자료 : JOC.COM

주 : 비교 기준은 2019년

- 세계 주요 경제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유럽 지역의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함
 - 전망 결과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교역량 감소폭은 전년 대비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중국 발 수입 물량에 대한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해운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교역량 감소에 따라 각 선사들은 선편을 축소했고('20.4~8월간 94편 결항 확정), 이로 인해 아시아-유럽 간 교역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임
 - 그 결과 '20년 1분기 주요 선사들의 재무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사는 2분기 수요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머스크(Maersk)사도 25% 감소를 예상함
- 상황 개선과 관련한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뉨
 - 하파그로이드사의 CEO Rolf Habben Jensen은 향후에도 상황이 매우 유동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선사·포워딩사는 재무 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반면,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현재 상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함

참고자료 : www.joc.com(검색일: 2020.6.15)



UPS,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 시설 확장 지속

- UPS는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 전용 창고 및 유통망 등의 시설 확장을 발표함
 - 해당 시설에는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신규로 개설되는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 우수 유통관리 기준) 준수 창고 및 미국 루이빌의 UPS Worldport 인근에 추가되는 콜드체인 창고가 포함됨
 - UPS는 또 중국 상하이에 코로나19 관련 운송을 위한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¹⁾ 준수 유통 창고(최대 150만 평방피트)와 신규 시설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 UPS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 사장 Wes Wheeler은 보다 복잡한 제약 및 실험실 테스트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품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UPS는 루이빌의 신규 GMP 준수 시설에 냉장창고(2~8도)와 냉동창고(-20~-80도)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함
 - 아울러 헝가리에는 GDP 기준 준수 시설을, 영국에는 자회사인 영국 헬스케어 전문 물류기업 Polar Speed²⁾를 통해 GMP 기준 준수 창고를 확장할 계획임
 - 신규 GMP 기준 준수 창고 및 운송 허브는 영국 미들랜드에 위치하며, 증대되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임
- Wes Wheeler 사장은 중요한 제품에 대한 복잡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UPS 헬스케어 서비스로 눈길을 돌리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사의 네트워크와 헬스케어 물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계속하여 품질 및 환자 중심의 전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참고자료 : www.ti-insight.com(검색일: 2020. 6. 15)

김은우 부연구위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중 가장 높은 기준으로, 미국 FDA가 현대적이며 혁신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방식 도입을 위해 2002년 마련함

2) 2014년 UPS가 인수했으며, 병원·약국·도매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 물류기업 CMA CGM, 아프리카로 물류 시장 확대

- CMA CGM의 자회사인 CEVA Logistics는 아프리카 물류 업체인 AMI Worldwide를 인수하여 아프리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음
 - AMI Worldwide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화물 운송, 보관업 및 프로젝트 물류 기업으로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의 12개 국에 거점을 두고 있음
 - 이번 인수를 통해 CEVA Logistics는 아프리카 41개 국에 79개 지사를 구축하며 아프리카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넓힘
 - CEVA Logistics는 올해 4월 에티오피아에 있는 화물 운송 업체 MACCFA 지분을 인수하고, 모리타니에서 물류 사업을 하는 등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CMA CGM의 이번 대형 인수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같은 프랑스 물류기업 볼로레(Bolloré)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볼로레(Bolloré logistics)는 1927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물류 사업을 운영해 현재 아프리카 46개국에 진출하여 있음
- 이번 인수로 CMA CGM의 CEVA Logistics가 아프리카 대륙의 자원운송과 3PL 서비스를 통해 아프리카 대표 물류기업으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의 주요 화물은 석유와 가스이지만,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에 따라 소매 및 소비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3PL 물류 활성화가 기대됨
- 또한,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은 아프리카 물류 산업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만, 경제재개 이후 1차 관세 부문 협정타결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내 무역 거래 증가로 물류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에티오피아는 패션과 섬유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같은 저비용 제조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CMA CGM의 아프리카 물류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해 물류 문제로 진출을 망설이던 아시아, 유럽 및 북미 지역의 CMA CGM 고객사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www.ti-insight.com(검색일: 2020.6.17.)

정문석 연구원

051-797-4607, moonlightj90@kmi.re.kr



DHL 익스프레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인력 충원

- DHL 익스프레스(DHL Express)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전년 대비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약 400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함
 - DHL 익스프레스 미국지사 물류허브인 신시내티/북 켄터키 국제공항(Cincinnati/Northern Kentucky International), 마이애미 국제공항(Miami International) 및 오헤어 국제공항(O'Hare International airports)에서 약 230명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임
 - DHL 익스프레스는 2020년 신시내티/북 켄터키 국제공항 30%, 오헤어 국제공항 25%의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중남미 및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약 3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였으며, 홍콩-로스엔젤레스-마이애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편이 생기면 물동량이 22%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5~6월 아시아 지역 인바운드 선적량이 급증함
 -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 인바운드 선적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물동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물류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 정리로 인해 전 세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DHL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물류 대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임
 - 아마존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만 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4월에 7만 5천 명을 추가 채용함
 -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수준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채용한 인력의 70%를 상근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ve.com(검색일: 2020.6.17)

김한나 연구원

051-797-4588, h.kim@kmi.re.kr



2020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 사업기간: 2020. 6. ~ 2020. 11.
- 주관기관: 부산항만공사
- 수행기관: 부산상공회의소(통상진흥본부)
- 지원규모: 개별지원사업 상세참조
- 지원한도: 세부사업 중복신청가능, 기업당 8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
- 신청기한: 2020. 6. 8.(월) ~ 2020. 6. 19.(금)
- 문 의 처: 부산상공회의소 장우현 주임(051-990-7085, whjang@korcham.net)
부산항만공사 이하림 대리(051-999-8585)

□ 개별지원사업

구 분		지원내용
수출준비단계	홍보 카탈로그 및 영상물, 홍보물 제작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앱, 홍보 동영상 제작비 (최대 400만원 한도, 5개사)
	수출전담인력 개발 교육	무역실무, 수출입 관련 자격증 획득 온/오프라인 교육 및 응시료 (최대 100만원 한도, 5개사)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2020 연중 코트라, 중진공,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 (최대 325만원 한도, 2개사)
바이어 발굴단계	해외바이어 발굴 온라인마케팅	해외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비용 검색엔진 마케팅, 해외 민간 네트워크 등록비용 (최대 400만원 한도, 4개사)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비 (최대 50만원 한도, 5개사)
	FTA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FTA 컨설팅 비용,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2개사)



계약 진행 단계	통·번역	번역: 수출관련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등 통역: 화상으로 진행되는 바이어 상담, 바이어 미팅 등 (최대 100만원 한도, 4개사)
	물류비	샘플 송부 비용 또는 계약 체결 후 수출 건 물류비 해상 및 항공운임, 창고 보관료 및 작업료, 내륙운송료, 견본물품 운송료 등 (최대 200만원 한도, 6개사)
	법률, 회계, 특허 자문 지원	법률, 회계, 특허 자문 컨설팅비 수출시 전문가를 활용한 계약서, 진출국가 법령검토, 해석,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자문 컨설팅비 (최대 100만원 한도, 2개사)

□ 참가신청

- 신청기한: 2020. 6. 8.(월) ~ 2020. 6. 19.(금)
- 신청대상: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부산·경남지역 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용역업체를 자율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홍보물을 제작함
 -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양식)
 - 사업계획서 1부(첨부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증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
 - 전년도 부산항이용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trass.or.kr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
(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 02-2140-073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신청방법: 이메일(whjang@korcham.net) 접수 후 확인전화
-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장우현 주임(051-990-7085, whjang@korcham.net)
 - 부산항만공사 사회적가치·혁신실 이하림 대리(051-999-8585)